

‘나주영산강축제’, 관람객 중심 축제로 열린다

7~11일 영산강정원 일원…편의시설·쿨쉼터 등 확충 현장 불편사항 반영…교통·휴식·위생 등 대책 보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2026 나주영산강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축제장까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하고 행사장에서 충분히 쉬며 오랫동안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교통과 휴식, 위생, 이동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11

일까지 영산강정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나주영산강축제’를 앞두고 관람객 편의 대책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해 축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교통 혼잡과 더위, 휴식 공간 부족 등 관람객 불편사항과 현장 의견을 면밀히 분석해 올해는 축제장 접근부터 체류, 휴식까지 전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축제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고 관람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원도심과 영산포, 빛가람혁신도시 등 3개 권역에서 축제장까지 직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셔틀버스 정류장은 원도심 나주시청, 영산강체육공원, 빛가람혁신도시 한전KDN 앞에 각각 설치한다.

셔틀버스는 각 정류장에서 축제장까지 중간 정차 없이 직행하고 가능한 한 촘촘하게 운행해 관람객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축제 기간 자가용 이용 차량이 집중되면서 축제장 접근에 1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올해도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3개 권역 직행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약 10분 안팎에 축제장까지 이동할 수 있어 관람객들에게 셔틀버스 이용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축제장 내 화장실도 지난해보다 확대하며 관람객의 주요 이동 동선과 공연, 체험, 음식 구역별 이용 수요를 고려해 화장실을 배치하고 행사 기간 수시 청소와 위

생관리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한다.

휴게시설도 대폭 보강한다. 냉방시설을 갖춘 ‘쿨쉼터’를 마련해 어린이와 고령자 등 더위에 취약한 관람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고 축제장 곳곳에 그늘막과 휴게공간을 확대해 장시간 머무는 관람객들의 피로를 줄일 계획이다.

수유와 기저귀 교환 등 영유아 돌봄에 필요한 독립적이고 쾌적한 공간을 마련해 어린 자녀와 함께 축제를 찾은 가족들이 보다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영유아 동반 가족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

는 관람객을 위한 유모차와 휠체어 무료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교통 혼잡과 더위, 휴식 공간 부족 등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올해는 편의시설과 운영 대책을 대폭 보강했다”며 “직행 셔틀버스부터 쿨쉼터와 그늘 공간, 수유실, 돗자리·유모차·휠체어 대여까지 관람객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준비해 누구나 편안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선소 일대 북소리 가득 ‘여수동동북축제’ 개최

3~4일 선소·용기공원 일원…퍼레이드·공연 등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문화 체험 축제인 ‘여수동동북축제’가 3~4일 선소와 용기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선소 앞바다를 배경으로 북소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선보인다.

대표 프로그램인 ‘북 퍼레이드’는 3일 오후 5시 선소 앞을 출발해 용기공원 주무대까지 행진한다.

특히 올해는 가족·단체·해와 참여가 확대되고, 퓨전 및 해의 타악 공연과 대북·난타 개막공연 등이 더해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키즈존(인형극장, 에어바운스 등)을 확대하고, 시민 참여 경연대회와 북·드럼 전시·체험을 강화했다.

또 해외입양인단체와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동동빌리지’를 운영해 해외 전통 복장과 타악기 체험 등 글로벌 화합의 장도 넓혔다.

선소 앞바다 도로에서는 프리마켓과 상설 공연 등 풍성한 즐길거리를 더한다. 시는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행사 기간 행사장 일대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 2일 오후 9시부터 5일 오전 6시까지 선소 투썸플레이스 앞부터 장성삼거리까지 차량 통행을 전면 차단하고 축제장으로 운영한다.

‘북 퍼레이드’ 진행에 따라 3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부영3단지 사거리에서 선소 방면 차량 통행도 일시 제한한다.

시 관계자는 “풍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해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만큼 시민과 관람객들의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며 “북소리와 함께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

영광, 농업 현장 새 기술로 변화·성장 ‘견인’

보급사업 종합평가회

성과·현장 적용성 등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이 농업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성과를 확인하며 지역 농업의 변화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1일 영광군에 따르면 최근 농업기계교육관과 시범사업 현장에서 시범사업 농가와 희망 농업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올해 추진한 새기술 보급사업의 성과와 현장 적용성을 점검하고,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농가에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 대상은 작물환경과 소득개발 등 2개 분야 19개 사업, 50개 소다.

참석자들은 승용형 농기계용 자동조향 장치와 버 품종 전시 실증포, 딸기 육묘포트, 무인방제 기반 아열대 만감류 재배,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 등이 적용된 현장을 차례로 살펴봤다. 이어 국립식량과학원과 전남도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센터·원예연구소 등을 찾아 관련 기술과 적용 사례를 확인했다.



최근 농업기계교육관과 시범사업 현장에서 ‘2026년 새기술 보급사업 종합평가회’가 개최됐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청

특히 이번 평가회에서는 단순한 사업 실적보다 농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자동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한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 대응 등 실제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돕는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살폈다.

농업인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작황과 기술 적용 효과, 현장 활용성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확대가 필요

한 기술과 개선점도 공유했다.

정재욱 영광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확산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마트농업과 기후변화 대응, 노동력 절감 등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맞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해 영광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필 기자 ykjpg98@gwangnam.co.kr

해남, 양육 지원 ‘아이키움수당’ 지급

2025년 이후 출생아 대상 1~7세 매월 20만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이 ‘해남아이 키움수당’ 지급을 시작했다.

1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아이 키움수당은 2025년 이후 출생아에게 1세부터 7세까지 매월 20만원을 모바일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2024년 임신·출산가정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출산·양육 지원사업 11종을 통합·개편하고, 2025년 보건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이번 사업을 신설했다. 기존 현물성 중심으로 분산돼 있던 11개 개별사업을 일원화해 수당으로 전환하고, 가정의 선택권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산모·아기사랑택배, 출산맘 행복상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임신부의 날 행사, 딸꿈아이사랑행사는 사업내로 흡수되었고, 초음파·기형

아 검진비, 임신부 영양지원, 임신부 가사돌봄지원, 기저귀 구입비 지원 사업은 기존 수급자까지 지원, 신생아 양육비 지원 사업은 출생연도에 따라 분할기간을 단축해 아이키움수당으로 흡수하게 된다.

매월 25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지만, 추석 연휴를 고려해 지난 23일 첫 수당을 지급했다. 9월 지급 대상은 총 153명으로, 소급분을 포함해 1억5180만원이 지급됐다.

군은 앞으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며, 수당은 지역 내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과 전용계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신협·수협·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청

목포,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금융기관 확대

광주은행·농협은행에 신협·수협·새마을금고 추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권과 전용계좌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근 신협·수협·새마을금고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는 광주은행과 농협은행에서만 개설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기존 2개에서 5개로 늘어나며, 목포시 관내 이용 가능한 영업점도 10개소에서 36개소로 확대된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주지나 사업장과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선택해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 금융기관 이용 편의와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강성취 목포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금융기관 선택 폭이 넓어지고 이용 편의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보조사업자가 사업에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 편의를 높이고, 예치금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협약 체결에 따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보조사업자 안내공문 등을 통해 협약 금융기관과 계좌 개설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화순, 옛 복암선 폐철도 ‘생태 테마 숲길’ 조성

3km 구간·2029년 완공…도심 관광·생활권 이동 연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장기간 도심을 가로막고 방치됐던 옛 복암선 폐철도 부지를 군민을 위한 생태 테마 숲길로 조성한다.

1일 화순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주관하는 ‘2026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따라 추진된다.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은 철도 폐선부지 등 국가 소유의 유휴부지를 지자체가 공익적인 주민 편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소유의 철도부지 40필지, 8만 6613㎡를 최장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막대한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대상지는 화순역(백리리 507-1)에서 광덕교차로(광덕리 226-1)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3km 구간이다. 군은 이곳을 걷으며 쉬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선형공원으로 조성해 2029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 구간은 과거 화순공업소에서 생산된 석탄을 운반하던 구간으로, 운행 중단과 폐선 이후 삼천지구와 광덕지구 등 도심을 단절시키는 공간으로 남아



복암선 폐철도 부지

있었다. 그동안 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경작 등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군은 최근 심화하는 폭염과 도시열섬현상에 대응해 외곽 산림의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바람길 녹지축’을 구축할 계획이다. 녹지와 휴게공간을 확충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도심 온도를 낮추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꽃강길, 개미산전망대, 남산공원, 하니움문화스포츠허브 등 화순을 주요 문화·체육 인프라와 연계해 개발한다. 이 구간은 과거 화순공업소에서 생산된 석탄을 운반하던 구간으로, 운행 중단과 폐선 이후 삼천지구와 광덕지구 등 도심을 단절시키는 공간으로 남아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담양, 1명당 최대 40만원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자녀 양육과 학업 또는 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가운데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명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의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로 확대돼 지원 대상이 넓어졌다.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0~1세 자녀는 월 40만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원을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시수 기자 lss270@gwangnam.co.kr